

전남교육청, 학생 도박 문제 예방 대책 수립

‘도박문제 조기개입 · 치유시스템’ 구축

전남도교육청이 학생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본격 활동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학생 도박 문제가 위험수위에 달해 사회문제 화합에 따라 전남 학생들을 도박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2019 학생 도박 예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학생 도박문제 조기개입 및 치유시스템을 구축, 도박문제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학업어려움, 심리적 불안, 자살문제 등의 해결에 복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학생 도박 예방과 치료적 개입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온라인 교원 직무 연수를 활성화함으로써 현장에서 도박학생에 대한 조기개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상별 예방교육 강화와 도박예방 선도학교 운영으로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학부모 예방교육을 통해 학

생들의 도박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리고, 올바른 인지 대처방법으로 학교와 가정에서도 예방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0년 3월 도박예방 선도학교를 선정해 도박예방 연구, 치유프로그램 등으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와 협력을 통해 도박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치유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위기학생치료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국립나주병원 등을 통해 중독문제 해소를 위한 심리치료도 병행하며, 그에 따른 치료비도 지원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청소년 도박문제는 일시적이지 않으며, 온라인 불법도박시장의 확산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들은 불법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박에 참여하고, 심리·신체적 불안정성이 높은 청소년기에는 심각한 중독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도박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위협행동(사채이용, 자살시도)이나 범죄행위(절도, 감취)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실시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이 제주(14.3%) 충북(10.8%), 전북(10.6%), 충남(10.2%) 전남(9.3%) 순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권역별로는 제주권 14.3%에 이어 호남권 9.3%, 충청권 8.9%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전남은 2015년과 2018년 모두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이 상위 5위 안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예방교육·예방활동(캠페인) 등의 경험은 타시·도에 비해 평균 이하로 저조했다.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김성애 과장은 “또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위험정보를 제공해 도박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을 낮추는 또래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며 “불법도박을 철저히 단속해 위험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이 7일 아침 등교시간에 하백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하백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북구청, 북부경찰서,

북구보건소, 매곡동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학생이 안심하고 즐겁게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

고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학교폭력 로그아웃 친구사랑 로그아웃 ▲상처받은 친구마음 감싸 주는 우리우정 ▲학교폭력예방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 ▲학교폭력 NO 친구사랑 YES 등 학교폭력 예방 표어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동부교육지원청 장영신 교육장은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학생들을 교문 맞이하며 학교가 즐겁고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서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를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광주시교육청, 2020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광주시교육청이 3개 기관(장의 융합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문화회관) 영재교육원에서 초·중·고등학생 분야별 영재 1452명을 교사관찰추천과 영재성?인성 검사를 통해 선발한다. 이 중 예술영역과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학영역은 내년 1월과 3월 중에 별도 선발한다.

2020학년도에는 영재교육개편 방향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심의 운영 체계 확립으로 3개 직속기관 부설 영재교육원으로 운영이

되고, 지역공동 영재학급은 폐지 또는 영재교육원에 흡수되어서 운영된다.

또한 단위학교 영재학급인 ‘키움영재학급’이 27교(초등 10교, 중등 4교, 고등 13교)에서 42학급이 신설되어 운영된다.

광주시장의 융합교육원(원장 최숙)은 2020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선발 계획을 발표하고, 영재교육 업무담당자 250명을 대상으로 선발 계획 설명회 및 교사관찰추천시스템

(GED) 사용자 연수를 실시했다.

선발 일정은 단위학교에서 21일 관찰평가 대상자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28일 지원서 접수 마감, 1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단위학교 교사 관찰 추천, 11월19일 영재교육기관에 학생 추천이 이루어지고, 영재교육기관별로 12월7일 이후 영재성검사 및 인성 검사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재교육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 SNS 팔로워 3만 명 돌파



광주시교육청 페이스북 팔로워가 3만 명을 돌파했다. 최근 시교육청 페이스북 페이지는 적정 규모학교 육성 등 ‘햇반’ 정책에 대한 공론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해당 페이지를 향한 시민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일 ‘광주시교육청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 수가 정확히 30,000명에 도달했다고 7일 밝혔다.

7일 오전 10시 기준 팔로워 수는 3만 131명이다.

교육청은 2011년 9월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개설해 시민과 소통을 이어왔다. 팔로워 구성원은 15~19세가 10%, 20~26세가

44%, 27~37세가 19%, 38~46세가 10%를 차지해 현장 교육과 정책에 실제로 관심이 있는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가 구성비도 대한민국이 95%를 차지해 허수가 아닌 실제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다.

7일 기준 광주교육청 주요 SNS 팔로워 수는 인스타그램 7,078명, 카카오톡 채널 1,507명 등으로 집계돼 사회관계망으로 통해 소통하는 시민들 수는 3만8천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인구수 대비 팔로워 숫자의 비율이 17개 시·도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호 기자

광양동초, ‘작가와 만남’ 진행



광양동초등학교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교내 숲생 도서관에서 ‘3인의 작가와 떠나는 3일의 독서 여행’이라는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열었다. 평소 즐겨 읽었던 동화책의 실제 작가와 만남을 통해 작품을 쓰

게 된 동기, 책 속에 읽었던 문구 속에 담겨진 숨은 에피소드 등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갖기 전 학생들은 학년 수준에 맞는 책을 읽고 그 작가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를 메모지에 써 붙여 가져온

깊은 만남을 준비했다. 첫째 날은 5, 6학년 학생들이 ‘조선 특별수사대’를 쓴 김해동 작가와 함께했다. ‘조선특별수사대 1’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대표적인 저서인 ‘목민심서’ 출간 200주년에 맞춰 2018년 발간

된 작품이다. 학생들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추리와 상상력을 갖게 한 작품으로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김해동 작가의 강의를 들었다.

이어 둘째 날에는 1, 2학년 학생들이 ‘사탕 괴물의 미우 작가와 만났다. 저학년 학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큼 재미있고 이야기를 풀어주고 괴물 인형으로 분해 더욱 재미있는 시간이 됐다.

마지막 날에는 3, 4학년 학생들이 ‘내가 그린 게 아니야’의 일서경 작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태풍으로 일정을 취소할 수도 있었는데 비바람이 치는 악천후에도 먼 길 마다 않고 본교를 찾아 준 작가의 열정에 성명희 교장은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